

군산 제지산업의 상징 '북선제지 크레인' 선보인다

일제강점기 남한 유일 신문용지 생산공장...근대역사박물관 전시 "군산 경제 이끈 향토기업의 옛 모습과 시민의 땀·꿈 엿볼 수 있어"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은 야외 전시장에 광복 이후 군산의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제지산업 역사를 상징하는 '북선제지 크레인'을 전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시된 곳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입구다.

일제강점기 북선제지는 설립 당시 남한에서 유일한 신문용지 생산공장을 가진 기업이었다.

연간 신문용지 3만t을 생산했다. 지난 1944년 군산에 생산공장을 갖췄으며, 크레인은 당시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 일본에서 가져온 것으로 가로 8m, 세로 2.5m, 무게 5t의 초대형 규모를 자랑했다.

북선제지는 광복 이후 1954년 '고려제지'를 걸쳐 1973년 군산 출신 향토기업인 고판남(1912~1998)씨가 삼성과의 인수 경쟁에서 승리해 '세대제지'를 탄생시키며 발전했다.

당시 세대제지는 우리나라 신문용지 생산 업체에서 생산능력 1위의 최고를 자랑했다.

군산의 산업은 1970~80년대 국내 신문용지 생산을 주도했던 향토기업 세대제지를 통해 경제 성

장을 이뤘다.

북선제지 크레인의 형태인 천장형 크레인은 천장에 서로 마주 보는 벽을 따라 레일을 가설하고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크레인을 설치해 무거운 물품을 쇠줄에 감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화물을 운반했다.

형태상의 특징으로는 나사 모양의 리벳을 사용했다는 점인데 이러한 형태는 군산내항의 부잔교 제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시된 크레인은 21세기 최첨단 자율 생산시스템 설비가 갖춰진 현재의 산업 현장에서는 무겁고 쓸모없는 생산 부품으로 남았지만, 일제강점기 수탈과 저항의 도시였던 군산의 근대산업 역사를 말해준다고 군산시는 설명했다.

군산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향토기업의 성장과 함께한 수많은 군산시민의 땀과 꿈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에 전시한 크레인은 1940년대 이후 군산 경제를 대표했던 제지산업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다"며 "수십 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군산 제지산업의 상징 '북선제지' 크레인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입구에 전시돼 있다. <군산시 제공>

근로자들과 함께한 크레인은 군산 시민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유물로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parkks@kwangju.co.kr



고창군 고인돌 유적지 죽림 선사마을에 비치된 공공자전거. <고창군 제공>

따르릉 자전거 타고 신나게 고인돌공원 달려보자

고창군,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 구축

고창군은 고인돌공원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전거는 고인돌 유적지 죽림 선사마을에 비치돼 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고창군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은 관제프로그램,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으로 구성됐다.

관제프로그램은 실시간 자전거를 빌려주고 반납 상황, 자전거 위치, 배터리 상태 등을 알려준

다. 공공자전거는 잠금장치를 갖추고 있어 스마트폰 소지자라면 누구나 인증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여와 반납은 모두 공공자전거 거치대 옆 키오스크(무인대여 단말기)에서 이뤄진다. 반납은 공공자전거를 거치한 후 키오스크에서 반납처리를 하면 잠금장치가 잠기면서 처리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군산시가 학생 가정에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군산시 제공>

군산시,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코로나로 판로 막힌 생산 농가 돕고 급식 중단 학생들 부담 완화

군산시는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제작 각 학생 가정에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돕고,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식생활유지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공급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으로 152개

교 3만3939명의 학생 가정이다. 가정당 3만2000원(택배비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 기존의 '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대체한 것으로 총사업비 10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각 가정에 택배를 통해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

꾸러미는 친환경 쌀·잡곡과 신선 채소류, 지역산 가공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군산시 농업인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꾸러졌다.

/군산=박금석 기자 parkks@kwangju.co.kr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 '인기' 정읍시, 성북구 일원 500개 완판

정읍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된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의 소비처 확보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29일 서울 성북구 성북천 일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드라이브 스루' (Drive-thru)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정읍시와 성북구는 상호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도시로, 성북 구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정읍 농민에게는 판로를 확보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농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판매 행사를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인 '찾아가는 드라이브 스루' 행사는 성북 구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농촌과 도시의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소비라는 인식으로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500여 개를 모두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남원시, 지역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남원시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남원 출신 전국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 모 또는 본인이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 재학생이다. 신청은 온라인(남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교육체육과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2020년도 1학기에 발생한 이자 지원이며, 이자율은 2.0%로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모두 지원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육체육과(620-5605)에 문의할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체육회 정기 대의원 총회

정읍시체육회(회장 강 광)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정읍시체육회관에서 2020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각 종목단체 회장, 읍면동 체육회장으로 구성된 대의원 62명 중 57명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전자 회의록 초록 보고와 2019년도 사업결산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했다.

이어 2019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 단체 승인, 임원 선임 등 총 6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승인했다.

/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